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영성    제목: 리얼한 영성    성경:창세기 39장 20-23절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39:20-23)

요즘은 TV에 오락 프로그램도 리얼한 것이 대세인가 보다. 리얼하다는 말은 가짜가 아닌 진짜(real McCoy), 허구가 아닌 실재하는 것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부사로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데, 요즘은 매우 힘들고 쓰라린 경험을 실제로 당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영성을 리얼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이땅이 아닌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여긴다.

그러나 리얼하지 않는 영성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영성이 리얼하지 않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영성이 아니다.

심지어 성경은 주술사가 기적을 일으켜도 그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가 말한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다. 마치 요술처럼 조작되고 연출된 것들이라는 것이며, 만약 거기에 악한 영이 개입되었다면, 보는 시각, 가치관, 분위기까지 모두 세트로 기획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얼하지 않다.

<‘좋은 아니한 가/家’(한국영화 2007)에 나오는 문희경의 커피여행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성은 참으로 리얼한 영성이다. 기독교 영성은 실재하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처절해야만 리얼한 것은 아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가 매우 리얼한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셉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는데, 삶이 그를 돕지 않았다. 형들이 미워했으며, 그를 팔아 넘겼고, 애굽의 주인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의 아내는 그를 유혹하다가 그를 파멸시킨 자였다.

아마 그 이후로도 어려운 일들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신령한 꿈을 꾸었고, 그 꿈들은 현실과 직결되었다. 그는 리얼하지 아니한 개꿈을 꾸지 않았다.

그렇다면 리얼한 영성이란 무엇인가?

예> 여기 달걀이 하나 놓여 있다. 이 달걀이 3일 후에 병아리가 될 것인가? 청진기를 대 보면 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3일 후에 알 수 있는데 지금 알아야 한다면? 지금 먹을 것인가, 키울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삶에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성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현재의 오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 단지 간단한 생각에 불과하지만, 내 삶에 매우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꿈이 개꿈이라면? 다시 말해서 리얼하지 않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영성은 리얼하지 아니하면 내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성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곳에는 엄청난 거짓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거짓 때문에 진짜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거짓을 버리고 진짜를 가려내는데 힘써야지, 가짜가 많다고 영성 그 자체를 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영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내가 현실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사람은 어차피 영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으며, 무관심할수록 더 어리석고 거짓된 영성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결혼의 길흉을 점치는 것을 보았다. 길한 점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점을 보았다. 이것은 뻔한 거짓이다. 만약 흉하다면 결혼을 포기해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흉한 원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왜 흉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화를 제거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리얼한 영성이 아니다.

영성이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다.

리얼한 영성이란 그것을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한다.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한다.

자기의 가치관이 리얼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하고 고민하는 법을 다루는 것이 생각전쟁이다.

생각에서 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리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대화가 된다.

대화를 위해서는 원만한 관계가 중요하고 멀어지지 않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를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9가지 열매가 필요하다.

꿈(소망), 가치관, 생각, 말, 관계, 믿음, 사랑, 성령의 열매 등 영성의 기초과목이 거의 나열 되었다.

여기에 은사, 전문지식, 경험과 훈련, 연합, 영적전쟁, 거짓과 진리, 질서, 순종, 감사, 기쁨, 긍정적 태도, 비판이나 원망이나 불평 다스리

기, 헌신, 결단, 희생, 섬김, 율법주의와 자기 의 다스리기 등이 영성의 숙련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다스리기, 권세, 권위, 영광, 돈을 다루기, 규칙을 정하기, 존귀함, 명예, 치리, 전략, 승리 등이 영성의 전문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이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기초를 배웠다면, 보디발 밑에서 숙련 과정을, 감옥에서 전문 과정을 배웠다.

성경에는 리얼한 표현이 생략되었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볼 때 이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더 이상 출세하지 않을 것이라면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다.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므로 감옥에 갔다. 그는 감옥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는 철저히 간수장에게 순종하면서 감옥의 법을 배웠고 감옥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침내는 감옥의 열쇠를 쥐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냥 꿈만 꾀대고, 관계는 관리하지도 않고, 잠을 실컷 자고 놀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을까? 간수장 우습게 알고 그를 존경하지도 않고 농담 따먹기만 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성실했다. 간수장이 그를 믿었다. 그는 은사를 사용하였고, 그 은사를 갈고 닦았다. 정확하게 앞일을 예측하였고,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였다. 그는 길한 것만 예측하지 않았다. 흉한 것도 예측하며 범인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였다. 감옥이지 않는가? 죄인을 다스리는 곳이니 그 업무에 충실한 것이다. 반면 억울한 죄인에게는 희망을 주고 그가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시 말해서 진짜 영성이란, 미래에 대한 점을 치고 그 점이 이루어지는가를 기다리는게 아니다. 그것은 무속적 영성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영성이란 지금 현재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 설령 진짜 내 삶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다. 현재 나의 삶, 내 생활에서부터 영성은 시작한다.

가장 기초가 되는 꿈과 생각부터 정결케 하자.

인생은 코미디가 아니다. 대충 되어지지 않는다.

모두 리얼한 영성에 익숙해서 요셉처럼 승리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